민주, 인적쇄신…송 불출마 '초강수'

대선 코앞 '이 지지율 정체' 배수진
설연휴 앞두고 '명절 민심' 겨냥 관측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전방위적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새해 들어서도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요지부동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대선 판세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설 연휴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만큼 '명절 민심'을 겨냥한 측면이 다분다는 평가다.

실제로 김종민 의원이 지난 23일 공론화한 이른바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생) 용퇴론'을 계기로 당내 인적쇄신 움직임은 속도전에 가까웠다.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 7인회의 24일 백의종군 선언에 이어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은 물론 종로 등 지역구 재보선 무공천,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 처리 등이 핵심이다.

특히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두고는 '86세대 퇴진'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86세대 맏형' 격인 송 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함에 따라 다른 다선 중진 의원들의 2선 퇴진 압박도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 대표는 회견에서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라며 다른 중진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 대표가 자신부터 내려놓겠다며 저렇게 빨리 결단했는데 다른 86 의원들이 팔짱만 끼고 있을 순 없을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연쇄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송 대표가 회견에서 '동일지역 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선 의원들이 몰려 있는 86 그룹이 버틸 공간이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훈 민주당 대학생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불출마 용단에 감사하다"면서 4선 연임 금지에 "이제 586 선배들이 화답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앞세운 일련의 인적쇄신 흐름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몰이용 인위적 개편에 치중하면서 되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반발도 감지된다.

특히 4선 연임 금지는 의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실제 제도화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4선 연임 금지는 반헌법적이고, 종로 무공천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특히 지역구 무공천은 대선을 앞두고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놓고도 백의종군이나 선당후사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다른 중진들도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미노식 불출마 움직임으로 이어질 공산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050위원회 발대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050위원회 발대식 및 필승결의대회에서 임종성·정성호 의원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3.9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국힘 대선후보 TV토론 법정 공방

심상정 "공영방송 책무 저버리는 것"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25일 열렸다.

심상정 후보와 방송사 3사 양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자 TV토론을 설 연휴인 30일 또는 31일 오후 7~10시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상파 3사에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언론사 초청 토론회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양자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양당의 주문생산된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6개 방송사로부터 4자 토론 제안서를 공식 문서로 받았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던 토론회가 무산됐고 양당이 주문한 토론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송 독립성을 규정하는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인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 측 류하경 변호사는 "(방송사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토론회가 무산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자토론을 하기 싫다고 하는 윤 후보를 빼고 나머지 후보끼리 토론하면 된다"며 "다자토론회 참여 안 하는 후보는 그 자체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가하면 되지 방송사들이 안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농림수산식품 예산 5%…생활권 주택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다시금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경기 북동부를 훑기에 앞서 농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 실현될까

민주당 내부 반발 예상…실제 가능성 미지수

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는 만만찮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2030세대가 부각된 것과 맞물려 세대교체·정치교체론이 거세지자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30대의 초선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걸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무색료 무감미료 무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